

알아두면  
쓸데많은  
TU Graz  
잡학사전

2019년도 가을학기 교환학생 후기  
건축학과 지수빈

2019년 가을학기 TU Graz 교환학생 파견된 건축학과 지수빈입니다.  
한 학기 동안 생활하면서 보고 알게 되고 느낀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공유해 드리고 싶어  
조금은 긴 후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TU Graz에 파견될 다른 학우분들,  
특히 건축학과 후배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비자

비자에 관해서 가장 먼저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미리미리 준비하기**"입니다. 늦장부리다가 대사관 예약이 다 차 버리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시기에 예약을 하지 못하면 대행업체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는 있지만 4만 원의 대행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유를 갖고 준비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무조건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설명은 17년도 2학기 교환학생인 송유정 님의 후기에 제 경험을 조금 더 추가해서 써보았습니다. (제가 비자 발급 준비할 때도 이 글을 참고로 하면서 준비했으니, 3년 전 후기이지만 지금도 거의 변동 없이 유효할 것입니다!)

## 1. 여권

새로 발급받으셨으면 구 여권의 인적사항부분과 도장 찍힌 부분 모두 복사해가시면 됩니다.

## 2. 여권용 사진 2장

주의할 점

1. 최근 3개월내 찍은 사진이어야 합니다.
2. 광택지에 인쇄해야 합니다. A4에 인쇄해서 가져가는 것은 아마 인정해 주지 않을 거예요.

팁 : 외국 나가서도 생각보다 증명사진이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출국 시 여분의 사진을 지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 ESN카드 사진 붙이는 칸에 사진을 직접 붙여야 함)

## 3. 오스트리아 입학허가서 메일로 온 Admission letter 인쇄

## 4. 왕복항공권 예약 확인증

결제를 아직 하지 않은 예약 확인증도 괜찮습니다. 이 예약 확인증을 잘 가져가야 하는데, 비자 신청 시 출발하는 날짜, 첫 도착 국가 등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출국 날짜 및 국가에 대한 항공권은 제대로 가져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노랑풍선이라는 사이트가 예약만으로도 확인증 출력이 가능해서 저랑 유정씨는 이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 5. 의료보험 가입증명서

- 의료보험 가입증명서는 3주만 커버 가능한 의료보험 가입증명서만 가져가면 됩니다. 이때, 상해와 질병에 대해서 3만 유로 (한화 약 4천만원) 정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자 신청이 반려됩니다. 잘 알아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료보험 가입증명서 영문 버전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편해요.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으로 추가적으로 신청해야 해야합니다.

- 어차피 현지에 가서 **GKK**라는 보험을 가입하시게 될 겁니다. 이 GKK는 거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고, 매달 거의 60~70유로를 내야 하기 때문에 교환학생 생활하는 동안 꽤나 무시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러니 비자를 위한 보험은 조건만 만족하는 선에서 가장 저렴한 여행자 보험을 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니면 다른 친구들 중에는 '나중에 GKK라는 보험을 들 것이다'라는 증명서? 를 대신 제출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몰라서 교환 기간 동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야 했습니다.

## 6. 은행잔고 증명서 (1인당 6천 유로 이상)

원래는 발급 수수료가 3천 원 정도 드는데 교내 신한은행 직원분께서 여기에서 환전하고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수수료 면제해 주셨어요.

## 7. 오스트리아 거주 증명서

기숙사(OeAD) 계약 후에 오는 메일들 중 Angebot Unterkunft | Accommodation offer라는 메일에 있는 첨부파일의 BV regular\_GAST의 Residence Contract 독일어 버전과 영어버전 (각각 2페이지씩) 프린트 해서 갔어요.

## 8. 주민등록등본 (영문)

영문 주민등록등본은 기계로는 뽑을 수 없고, 구청에 직접 가서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9. 100유로 유로로 뽑을 필요없이 원화로 가져가도 됩니다.

## 10. 신청서 현장에서 작성 예시를 보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사본 모두 필요 (원본은 본인 보관용, 사본은 오스트리아 대사관에 제출용)

추가로, 비자와 관련해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무비자 체류 기간과 학생비자 체류 기간을 합친 만큼 외국에 있을 수 있느냐?' 였는데, 간단히 결론만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학생 비자에 명시된 만큼의 기간 + 무비자 체류 기간 (90일) 만큼 외국에 계실 수 있어요.



## 기숙사 신청

TU Graz는 서울대처럼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는 없습니다. 대신 여러 기숙사 업체가 존재합니다. 주로 **OeAD**라는 기숙사 업체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누이바오가세(Neubaugasse) 혹은 슈테레아가세(Steyrergasse)에 많이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슈테레아가세에 살았는데, 걸어서 10분 이내의 거리에 건축학과 건물이 있어서 등교할 때 매우 편했습니다. 다른 학과 건물들도 슈테레아가세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저는 슈테레아가세를 적극 추천합니다. 누이바오가세는 슈테레아가세보다 좀 더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에 시설이 조금 더 좋고(슈테레아가세에는 없는 오븐도 있더라고요), 기숙사 테라스에서 보는 전망이 매우 좋고, 바로 근처에 마트가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바로 옆에 클럽이 있어서 방 위치에 따라 밤에 소음과 진동이 그대로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교 면에 있어서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기숙사 신청 시 주의할 점 중 하나가 **혼성 플랫**입니다. 이곳에서는 심심치 않게 혼성 플랫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할 때 이를 꼭 언급해야 합니다.

OeAD 외에도 그린박스같은 다른 업체들도 많습니다. 더 싼 가격에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OeAD 기숙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업체를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 공간 (1인실)



공용 공간 (부엌)

기숙사는 공용 공간(부엌, 화장실, 샤워 공간)과 n개의 개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인 공간은 1인실과 2인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두 개의 1인실과 부엌, 화장실, 샤워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 외에도 1인실 1개와 2인실 1개, 1인실 3개와 2인실 1개 등 다양한 조합들이 있는데, 이 조합은 랜덤입니다. 사람이 많은 기숙사는 여러 명이 공용 공간을 같이 써야 하니 힘들겠지만 그만큼 부엌이 넓은 장점이 있고, 저처럼 사람이 적은 경우에는 사람이 부족대는 단점은 없지만 부엌이 작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숙사 구조가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같은 돈을 내고도 운이 좋으면 다른 1인실보다 좀 더 넓은 방을 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운이 좋았던 편이었습니다. 저보다 넓은 1인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 Steyrergasse

등교하기 좋다

### Neubaugasse

마트가 매우 가깝다  
시설이 약간 더 좋다  
경치가 좋다

학교가 다소 멀다 (특히 임펠트)  
클럽 소음 및 진동



기숙사 체크아웃 하는 날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

개인적으로는 돈을 조금 더 내고 1인실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낯선 곳에서 오랜 기간 지내다 보면 힘든 일도 분명 생길 건데, 그럴 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오롯이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흑여 룸메이트와 생활 패턴이 맞지 않으면 더욱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여담으로, 기숙사 조명이 매우 노랗습니다. 조명이 너무 노란색이어서 제 방에서 화장을 하면 색깔이 이상해질 정도였어요.

## ESN

ESN은 교환학생을 위한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서울대 스누버디의 유럽 대륙 버전이랄까요. 교환학생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Buddy 매칭, 각종 Tour 주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출국 전에 신청해야하는 Buddy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 #Buddy

로컬 학생 1명과 교환학생 몇 명을 매칭해서 생활 전반을 도와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을 확인한 다음 ESN 사이트에서 각 Buddy들의 자기소개를 보고 원하는 버디를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간혹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 왔거나,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표기해 놓는 친구들이 있으니 그런 점들을 잘 보고 신청하면 좋습니다.

## 장학금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파견되는 교환학생이라면 장학금을 받고 교환학생을 떠날 수 있습니다. 매년 정확한 액수는 달라지지만 300~400만원대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공대에서 주는 장학금 외에도 다양한 교내 장학금도 있고, 또 교외 장학금도 있습니다. 교환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교외장학금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과 아셈듀오 장학금입니다. 신청 조건이나 기간을 잘 알아보고 지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Part 2.

## 교환학생 - 학업편

#날씨 #생필품 #의식주 #중고거래 #교통 #계좌개설

### GIC German Intensive Course

정규 학기 개강 전 약 한 달 간 진행되는 독일어 수업입니다. 신청은 출국 전에 하면 됩니다. 독일어를 특별히 배운 적이 없다면 가장 낮은 레벨인 A1에 해당하는 수업을 듣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12시 15분까지 약 3시간 가량 수업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에 따라 로드나 수업 내용은 갈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독일어 실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수업에서 다양한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기서 만난 친구들과 프라하 여행도 같이 가고, 항상 옆자리에 앉았던 대만 친구와도 계속 연락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 독일어를 정말 하나도 모르고 교환학생을 갔는데, 그래도 이 수업을 통해 읽는 법과 몇몇 단어 정도는 배울 수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독일어 눈치를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기본 개요

개강은 10월이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단기방학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를 포함, 전후로 한 주씩 총 3주) 때문에 종강은 1월 말~2월 초에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2월 중순, 심하면 2월 말에도 시험이 있는 친구들도 보긴 했는데, 귀국 때문에 일찍 가야 한다고 교수님과 협의를 하면 웬만하면 다른 방도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TU Graz에서 수강신청을 하면 서 신기했던 점 중 하나는 **중복수강**을 막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중복수강을 시스템적으로 막아 놓는 서울대와 달리, 여기서는 시간이 겹치는 수업을 둘 다 신청해도 시스템적으로 막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교수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조율하면 됩니다. 저도 스튜디오와 다른 수업이 시간대가 겹쳐서, 그 날에는 크리틱 순서를 최대한 앞쪽으로 조정해 달라고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른 수업을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수업 외에 **Intensive Course** 라는 수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업이 n주에 걸쳐서 진행된다면, Intensive Course는 3일 정도에 모든 수업 과정을 몰아서 끝내는 수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Intensive Course를 수강하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수업이 없는 시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행 다니기가 용이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건축과에는 Intensive Course가 별로 없는 듯 했습니다. (최소 영어 개설 강좌 중에서는)

## 스튜디오

※ 건축학과 수업을 들을 예정이 아니라면 본 파트를 지나가셔도 무방합니다.

우선, TU Graz에서는 Bachelor(학사) 과정이 총 6학기가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스튜디오를 들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Master 과정의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Master Studio를 들었고요. Bachelor용 스튜디오는 Design 과 Workshop을 한 세트로 들어야 하고, Master용 스튜디오는 Integral Design Studio라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설명할 스튜디오는 Integral Design Studio에 해당하는 설명들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학년별로 스튜디오 수업이 분류가 되는데 (ex. 4-2 스튜디오, 3-1 스튜디오, ...) 여기서는 Institute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는 '어느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여기서는 '어느 분야의 스튜디오를 들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Media, Landscape, Structure 등등 다양한 Institutes가 있고, 개설되는 스튜디오 개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스튜디오는 그 중에서 몇몇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강신청하기 며칠 전 건축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체 설계 스튜디오 **설명회**를 진행하게 될 것인데, 거기서 대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어 진행 강좌가 아닌 이상 독일어로 설명하기 때문에 독일어로 설명하는 부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영어로 설명해 주는 부서 중에서 마음에 드는 곳을 고르면 됩니다. 이 설명회를 꼭 가라고 하고 싶은 이유 중 하나는, 가끔 설계스튜디오 중에 사이트가 외국이어서 **외국 견학**을 가는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일례로 Institute of Architecture and Media에서 2019년 봄학기에 인도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근교 바르셀로나 나 비엔나 등이 설계 사이트로 선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설명회 가셔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Landscape Architecture 분야의 설계수업을 들었습니다. 설명회 때 학부 설명해 주셨던 분이 영어를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셔서 신뢰가 갔고, 파빌리온 공모전에 출품하는 수업이라는 점이 재미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사이트가 멕시코라는 점도 특이했습니다. 사실 사이트가 멕시코라서 멕시코에 갈 수 있을 줄 알고 신청한 것도 있긴 했는데 그건 아니어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업을 들은 것에 대해 굉장히 만족합니다.

스튜디오에 관해 또 알아두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TU Graz 건축학과 측에서는 교환학생이 특정 스튜디오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튜디오 배치 제비뽑기**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수강 신청이 열리기 전 교환학생들을 소집해서, 제비뽑기로 이름이 먼저 뽑히는 순서대로 원하는 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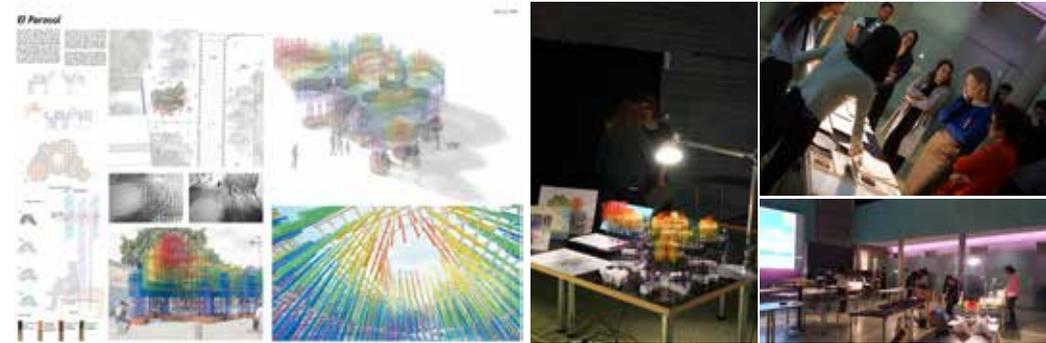
### Institutes

- 140 | Structural Design
- 141 | Urban and Architectural History
- 143 | Arch. Theory, History of Art and Cultural Studies
- 145 | Urbanism
- 147 | Building Typology
- 149 | Architecture Technology + Wood Architecture
- 151 | Spatial Design
- 153 | Architecture and Landscape
- 155 | Contemporary Art
- 157 | Housing
- 159 | Buildings and Energy
- 161 | Architecture and Media
- 163 | Institute of Construction and Design Principles

의 설계스튜디오를 선점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 때 기가 막히게도 꼴지로(ㅋ) 뽑히는 바람에 원하는 설계 수업을 듣지 못할 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뽑기의 맹점 중 하나는, **제비뽑기 이후에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을 다시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 또한 제비뽑기를 한 이후 온라인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스튜디오를 변경을 해 보았더니 아무 문제 없이 바뀌더군요. 이럴 거면 굳이 제비뽑기는 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처럼 제비뽑기 운이 따라 주지 않으시게 된다면 이 사실을 유용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은 Landscape Architecture 부서의 스튜디오에 대해 간단히 후기를 남기자면, MEXTROPOLI 2020 라는 파빌리온 공모전에 출품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파빌리온 설계 스튜디오였습니다. 한 학기 내내 2인 1조의 팀으로 진행하였는데 이 때 같이 작업한 친구와 정말 마음이 잘 맞아 교환학생 기간 내내 가장 친한 친구로 지냈습니다. 초반을 제외하면 거의 Individual Talk (크리틱)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수업을 총 담당하는 교수님 (Main Supervisor 느낌) Silvia와 그분을 도와주시는 Supervisor 두 분(Christoph, Biljana)이 계셨는데, Silvia는 매 수업마다 오지는 않았고 그럴 때마다 대부분의 크리틱은 Christoph와 Biljana가 해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作業물을 가져가도 거의 긍정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많은 참고자료들을 알려주려고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총크에 해당하는 Final Session은 홀을 빌려 전시회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전시실 한 칸에 간단한 다과와 와인을 구비해 두고 친구들도 초대해서 게스트 크리틱을 같이 받는 것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MEXTROPOLI 2020 Competition Panel

Final Exhibition

## 스튜디오 외 수업 후기

※ 건축학과 수업을 들을 예정이 아니라면 본 파트를 지나가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스튜디오 외에 두 개의 수업을 더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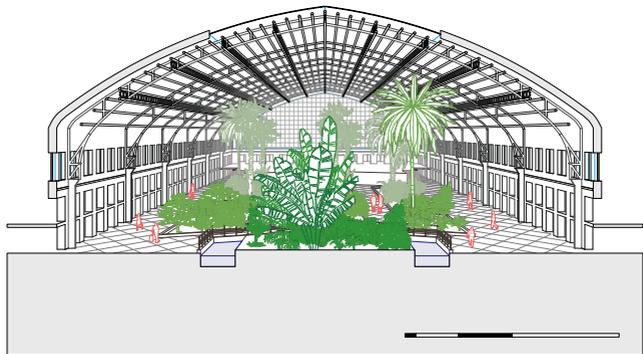
### Artistic Practice II

한 가지 주제에 대해 한 학기 동안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켜 그것을 전시회에 전시하는 형식의 수업입니다. 저 때의 주제는 "What keeps me awake?"라는 주제였으며, 각자의 논리 및 생각을 발전시키고 이를 어떻게 전시할지 매 시간 교수님들과 개인 크리틱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스튜디오 최종 전시처럼 이 수업도 흠을 빌려 최종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주제와 수업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수업 준비를 해 가면서도 '이게 맞나...' 싶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교수님(이름!)들이 계속 제 작업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에 무사히 전시를 마쳤고, 성적도 좋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 Urban Ecology and Design

Landscape 부서의 세미나였고, 스튜디오 Supervisor였던 Biljana가 진행했습니다. Plantastic이라는 제목 아래 진행이 되었는데, 한 팀(2인 1조)당 식물과 관련된 건물을 하나씩 맡아 Case Study를 진행하고, 각 Case에서 흥미로운 점을 찾아 주제로 삼아 간단한 레포트를 쓰는 수업이었습니다. 첫 수업이 11월이었기 때문에 출석 횟수가 몇 번 되지 않았음. 그에 비해서는 로드가 살짝 가볍지 않은 편이긴 했지만 '식물원'이라는 그 동안 다뤄보지 않은 유형의 건축에 대해 조사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점에서 재미있었습니다.



Urban Ecology and Design 수업 때 만든 Atocha Station Section Perspective

## 각종 시설 이용

### #인쇄

Rechbauerstrasse 12 건물 가장 아래층에 Print Center가 있습니다. 거기서 학생증에 돈을 충전할 수 있는데, 그걸로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최소 충전 가능 금액이 10유로이기 때문에 학기말에 돈이 남지 않도록 잘 생각해서 충전하는 게 좋습니다. 패널 인쇄도 이곳에서 하면 됩니다. 패널 인쇄 말고 A4나 A3 같은 작은 인쇄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굳이 Print Center까지 가지 않아도 캠퍼스 곳곳에 프린터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학생증을 태그하고 인쇄를 하면 됩니다.

그 외의 시설은 별로 이용해보지는 않았지만, 레이저커터나 3D 프린터 모두 구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학과 OT 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정보들을 첨부하는 거로 대체하겠습니다.

<b>Model Building Facility</b>	Kronesgasse 5 / KOEN <a href="http://koen.tugraz.at/modellbau/">http://koen.tugraz.at/modellbau/</a>
<b>Digital Workshop</b>	Kronesgasse 5 / IAM
<b>Light Lab</b>	Kronesgasse 5
<b>Robotic Lab</b>	Lessingstrasse 25, ground floor Inffeldgasse 24, ground floor
<b>Furniture Workshop</b>	Lessingstrasse 25, ground floor SE furniture design
<b>Studio Rooms</b>	Rechbauerstraße e 12/DG

Rechbauerstraße 12

Lessingstraße 25

Technikerstraße 4

Mandelstraße 9-15

Münzgrabenstraße 11

Kronesgasse 5



# Part 3.

## 교환학생 - 생활편

#날씨 #생필품 #의식주 #중고거래 #교통 #계좌개설

### 날씨 8월~2월

여름의 경우, 기온이 낮지는 않으나 습하지 않아서 그늘에 들어가면 매우 쾌적한 날씨입니다. 비도 많이 오지 않고 쾌청한 날이 많아 매우 행복해지는 그런 날씨입니다. 이 시기에 저는 공원으로 피크닉을 많이 갔었습니다.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니 여러분도 이 시기에 꼭 간식거리와 책을 챙겨서 피크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런 쾌청한 날씨가 9월 말~10월 초까지 계속되다가 10월~11월에는 매우 우울한 날씨로 바뀝니다. 서머타임까지 끝나고 나면 거짓말이 아니고 해가 4시만 되어도 누엣누엣 지기 시작합니다. 해가 떠 있을 때도 구름이 많아서 이 시기에 많이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조금씩 자주 내리기 때문에, 혹시 한국에서 가족신이나 워커 같은 젖지 않는 신발을 챙겨올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합니다.

12월 이후부터는 우중충한 날씨의 빈도가 비교적 줄어듭니다. 기온의 경우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아 한국보다 따뜻하면 따뜻했지 춥지는 않습니다.

### 생필품 구비

#### #식사

음식의 경우, 외식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기숙사에서 많이 해먹게 되며, 때문에 마트를 많이 가게 될 것입니다. 마트는 크게 BILLA, SPAR, Hofer, Lidl 네 브랜드가 유명합니다. BILLA와 SPAR는 약간 유기농을 지향해서 '조금' 값이 나가는 편이고, 때문에 유기농 같은 것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면 Hofer와 Lidl에서 사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브랜드 마트 말고 로컬 마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페라하우스 근처에 '아침에만' 열리는 마켓이 있는데, 야채류를 주로 파는 것 같았습니다.



그라츠에 한인마트는 없고 아시안마트가 두 개 있습니다. BoboQ랑 EasyAsia인데, EasyAsia의 위치가 별로 좋지 않아서 거의 BoboQ만 갔습니다. 2019년 10월에 가게가 Reischulgasse 8로 확장이전했기 때문에, 구글 지도랑 위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위치에서 거의 가깝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라면, 김치, 된장, 만두, 숙주나물, 소면 등등의 한국 식재료도 점점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식재료 뿐만 아니라 아시안 음식도 같이 파는 곳입니다.

마트를 비롯한 대부분의 가게가 일찍 닫는 편입니다. 6시 즈음부터 하나 둘 닫기 시작하고 아무리 늦게까지 열어도 9시, 10시 즈음에는 모두 닫습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중앙역 SPAR를 제외한 모든 마트가 닫으니** 일요일 전에 부지런히 장을 봐 두어야 합니다. 여담으로, 오스트리아는 내륙지방이라 해산물을 잘 팔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의류

H&M이나 NewYorker 등에서 시즌오프 세일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세일 품목 외의 물건이더라도 다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저는 출국 전에 유럽 옷 디자인이 정말 별로라는 이야기 많이 들곤 했는데, 생각보다는 예쁜 옷들도 많았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너무 옷이 작게만 나와서 못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유럽에서는 사이즈 제약 없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출국 전 짐 싸실 때 옷을 그렇게 많이 가져 오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생필품

IKEA, TEdi, Flying Tiger, Kik 등에서 구입하면 비교적 값싸게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의 경우 dm이나 BIPA를 이용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올리브영 같은 곳입니다.

## #중고 거래

중고 거래를 통해 같은 물건이라도 좀 더 싸게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그룹을 이용하건, 이전 교환학생으로부터 넘겨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저도 제가 오기 직전에 그라츠에 있던 같은 과 후배님께 자전거를 중고구매해서 타고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 보진 못했지만, CINEPLEXX(Alte Poststrasse 470) 근처에서 일요일 아침마다 벼룩시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직접 가격을 흥정하면서 구매하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네요.

## 교통

### 0. 시내 - 개괄

Graz 지역 내에서도 구글 지도를 쓰면 문제 없이 원하는 장소를 잘 찾아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편 검색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Qando Graz**라는 앱을 따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 1. 시내 - 트램 / 버스

#### #무료구간

트램과 버스를 타려면 교통권을 구매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무료로 트램을 탈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Jakomini(야코미니)와 Hauptplatz(하움트플라츠, 시청 부근의 도심 중심지) 역의 전후역, 즉 'X 정류장~Jakomini~시청~Y 정류장' 이렇게 총 3구간은 교통권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구간에서는 교통권이 있어야 하며, 만약 불시검문에 걸릴 시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저는 불시검문을 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사복을 입은 검사관들이 가끔 표검사를 한다고 하네요.

#### #정기권

Graz를 비롯한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의 교통권은 시간에 따라 교통권을 판매합니다. 1시간권, 24시간권, 1주일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현지 사람들은 몇 달 단위의 정기권을 구매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슈테레아가세 기숙사에 사는 사람이라면 정기권을 끊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등교도 걸어서 해도 되는 거리이고, 조금 거리가 떨어진 곳을 간다 하더라도 자전거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자전거를 싸게 구매해서 타고 다니는 게 낫습니다. 트램 무료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만 트램을 타고 나머지는 걸어서 가는 방법도 있구요. 그래서 의외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는 중앙역이나 IKEA처럼 정말 멀리 떨어진 곳을 갈 때 정도였습니다. 필요할 때 1시간권이나 24시간권을 구매해서 다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 #알아두면 유용한 트램 노선

중앙역에 가야 할 때 : 1 / 3 / 6 / 7

슈테레아가세 사는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트램 : 6 / 26\* (Neue Technik)

Alte Tech에 가야 할 때 : 3

Neue Tech에 가야 할 때 : 6

슈테레아가세에서 누이바오가세 놀러 갈 때 (혹은 반대) : 6

**Kunsthau**s(누이바오가세) - **Hauptplatz** - **Jakomini** - **Dietrichsteinplatz** - **Neue Technik**(슈테레아가세)

\*일요일 및 밤에 다니는 트램, 6번 트램과 같은 철로로 다니지만 Jakomini까지만 운행한다.

## 2. 시내 - 자전거

앞서 말했듯, 자전거 교통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자전거를 그렇게 많이 타보지 않아서 걱정했는데, 몇 번 타 보니 문제없이 타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새 자전거를 사는 것은 당연히 비싸므로 중고로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ESN Buddy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중고 사이트를 찾아보거나, 이전 교환학생에게 받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TU Graz 측에서도 자전거를 빌려 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들었는데 확실하진 않네요.)

자전거를 탈 때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반드시 자전거 앞뒤로 라이트를 설치해야 하고**(앞은 백색, 뒤는 적색) **바퀴살에 반사판도 필수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이걸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 밤에 라이트 없이 타고 다니다 걸리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고 다닐 때 손으로 좌회전 혹은 우회전 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의외로 헬멧은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더군요. 사람들도 거의 안 쓰고 다닙니다.)

## 3. 광역 - FlixBus / OBB / RyanAir / Omio

여행을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교통편들입니다. 참고로 오스트리아나 독일 일대의 버스나 기차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좌석을 지정해서 예약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추가요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자기 좌석 번호를 찾아가는' 한국과는 다르게, '예약이 되지 않은 곳의 자리를 찾아서 알아서 앉는' 시스템입니다. 예약이 되어 있는 좌석은 좌석 위에 별도의 표시가 되어 있으니 그걸 보고 눈치껏 앉으면 됩니다.

### #FlixBus

**국제학생증**이 있으면 최소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최초 몇 번에 한하여 20%할인 혹은 3유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OBB

우리나라의 코레일 같은 오스트리아 국영 철도입니다. 이와 관련해 드릴 팁은, 꼭 **Jugend Card**를 만들어서 할인을 받으세요. 발급비가 있긴 하지만 오스트리아 내 여정에 대해서는 50%, 오스트리아 외 여정에 대해서는 2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한두 번만 사용해도 발급비는 금방 매꿀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OBB 자체 어플리케이션이 있긴 한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에 서술할 Omio로 거의 대부분의 예약을 했습니다.

### #RyanAir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될 경우 가장 많이 쓰게 될 항공편입니다. 그 이유는 ESN 카드 소지자에게 총 8번의 항공편 할인 혜택과 무료 수하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달 전에 예약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만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최소 한 달 전에는 여행 계획을 짜서 예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행을 즉흥적으로 떠났던 저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 #Omio

유럽 전역의 교통편(버스, 기차, 비행기)을 검색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교통편들이 다니지 않는 지역에서 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계좌 개설

저는 N26이라는 계좌를 이용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카카오 뱅크같은 계좌로, 오프라인 은행이 없고 인터넷 상에서만 존재하는 은행 계좌입니다. 계좌 개설도 핸드폰으로 가능하고, 해지도 핸드폰으로 가능해서 편리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온라인으로 계좌 개설 과정을 거치고 나면 얼마 후에 우편으로 카드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이 과정이 엄청 오래 걸렸대네요., 저는 3일정도 걸렸습니다.) 단점은 카드 내로 현금 입금이 되지 않는다는 점? (출금은 가능)



Sparkasse라는 은행에서 무료로 학생계좌를 만드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할 때 무조건 오스트리아 내에서 해지를 하고 가야 하므로, 학기 끝나고 추가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라면 경우에 따라 귀찮은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 통신

저는 Educom SIM이라는 유심을 사용했습니다. ESN 카드를 발급하면 SIM 개통비를 면제해 주는 프로모션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Hofer SIM을 사용한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둘 다 가격이나 인터넷 속도는 큰 차이는 없는 듯하니 각자 상황에 맞춰 개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기는 제가 사용한 Educom SIM에 맞춰 쓰겠습니다. 가장 저렴한 요금제가 한 달 10EUR에 데이터 10기가 / EU 국가 3000메가 / 통화 1000분(?) / SMS 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통신비는 싼 편입니다.)



나중에 해지하는 방법은 Educom 서비스 이메일로 (customerservice@educom.at) 해지하고 싶다고 이메일을 보내면 답장으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자필 서명이 적힌 Letter of Termination을 회신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자필로 해당 내용을 적어서 사진을 찍거나 스캔해서 답장하면 됩니다.

## 알아두면 유용한 장소 / 행사 / 팁

### #맛집

대부분의 식사는 직접 해먹게 되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외식을 하게 되겠죠? 제가 갔던 곳 중 괜찮았던 곳 몇 군데를 공유합니다.

Dean&David	스밸같은 곳. 채소가 당길 때	Area5	날씨 추워지기 전에 루프탑 가 볼 것을 추천!
Glockl Brau	슈니첼을 비롯한 각종 오스트리아 전통 음식을 파는 곳	Koko	아시안 뷔페. 런치 가격이 괜찮습니다.
Pho You	유럽에서 먹었던 쌀국수 중 제일 담백하고 한국이랑 비슷한 맛. 양은 조금 아쉬움		

### #멘자

우리나라로 치면 학식입니다. 제가 갔던 곳의 멘자(Stremayrgasse 16)가 뷰도 예쁘고 음식 맛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학생 등록을 하면 적립+할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몇 번 못 가서 혜택을 많이 보진 못했지만 이곳에서 수업을 자주 듣는 분들이시라면 유용할 거라 생각이 되네요.

### #ESN 혜택

라이언어어 할인 외에도 ESN 카드를 발급하게 되면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ESN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투어**에 참여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ESN 인스타그램 계정(@esngra)을 팔로우하거나, ESN 홈페이지(<https://esn.htu.tugraz.at/>)에서 Event Calender를 확인하면 다양한 행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했던 행사 위주로 간단히 후기를 공유하겠습니다.

**#Office Pub** 특히 교환학생 초반에 많이 가게 될 행사입니다. 9월에는 매주 수요일, 9월 이후에는 격주 수요일마다 펍에 모여 다른 교환학생 친구들을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이 때 많은 친구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면 너무 시끄러워서 서로의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점...

**#Brewery** 그라츠 로컬 맥주라 할 수 있는 Puntigamer 양조장에 견학을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Puntigamer 공장을 돌아다니며 맥주가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보고 마지막에는 맥주를 마시며 끝마치는 투어였습니다.

**#스키캠프** ESN 투어 중 가장 인기가 많은 행사였습니다. 1박 2일로 다녀오는 캠프가 있었고, 당일치기로 다녀 오는 캠프가 있었는데 저는 당일치기로 갔습니다. 장비 대여와 리프트 이용권, 스노우보드 강습 신청까지 다 합쳐 70유로였는데 70유로 이상으로 재밌었습니다. 무엇보다 알프스에서 스노우보드를 타 보는 경험을 해본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와이너리 투어, 오페라 백스테이지 투어 등 다양한 투어가 있으니 관심있게 계속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이 아니라 직접 ESN office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ESN office 의 office hour가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몇시간 정도 뿐이라 신경쓰고 있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Uni Graz ESN (Harrachgasse 21, 1st floor)      Tuesday 18:30 ~ 20:00  
 TU Graz ESN (Rechbauerstraße 12)      Wednesday 19:30 ~ 20 : 30

※ TU Graz 학생이 Uni Graz 가서 신청해도 상관없습니다.

### #라운지

멘자 있는 건물에 라운지가 있습니다! 거의 24시간 열려 있는 공간입니다. 집에서 공부하기 싫을 때, 친구들과이랑 같이 공부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 #그 외 팁

- 일요일에 여는 유일한 마트는 중앙역 SPAR다
- 한국 쌀을 먹고 싶으면 rundkorn 이라고 쓰여 있는 쌀을 사면 된다
- 한국에서 먹는 우유랑 가장 비슷한 우유를 먹고 싶으면 VollMilch 를 사면 된다
- 9~11월 즈음에만 파는 **Sturm** 이라는 술이 있다. 와인과 과일주스의 중간 단계 정도인 술인데 굉장히 달고 맛있으니 꼭 한 번쯤 마셔보길 권한다.
- 9월 중순에 **Aufsteirern** 이라는 가을 축제가 열린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Hauptplatz로 나와 축제를 즐긴다. 각종 공연, 플리마켓 등이 열리니 꼭 구경해 보자.
- 10월 초에 **여성의 날**이 있는데, 이 때 각종 가게에서 기념 세일을 많이 한다.
- 12월 첫 번째 일요일은 **성 니콜라스 데이**이다. 나쁜 아이들에게 벌을 주는 크람푸스라는 괴물 분장을 한 사람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사람들(특히 아이들)을 겁주는 날이다. 그라츠는 이 성 니콜라스 데이 행사를 꽤나 크게 하는 편이라 하니, 꼭 구경해 보자.
- 크리스마스 한 달 전부터 그라츠를 비롯한 거의 모든 유럽 도시들이 **크리스마스 마켓**을 연다. 이 시즌에 여행을 다니느라 정작 그라츠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라츠의 크리스마스 마켓도 아기자기하고 예쁘니까 꼭 놓치지 말자.
- 시청 앞에서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을 볼 수 있다. 올해는 카운트다운 후 멋진 분수 쇼를 볼 수 있었다. 같은 교환학생 친구들과 함께 보러 가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 |   |   |  |
|---|---|--|
| 1 | 2 | 1 Aufsteirene 축제 전통 공연<br>2 Aufsteirene에서 맛볼 수 있는 Sturm과 Kaiserschmarrn (오스트리아 팬케이크) |
| 3 | 4 |  |
| 5 | 6 | 3 Brewery Tour<br>4 스키캠프<br>5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 분수 쇼<br>6 라운지에서 함께 공부한 친구들                 |

졸업을 한 학기 남기고 결정하게 된 교환학생 생활이었습니다.

그만큼 처음에는 부담도,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값진 인연들을 만나고,

저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을 고민하고 있는 학우분들이 계시다면

주저없이 도전해 볼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값진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공과대학 대외협력실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subeeni96@naver.com](mailto:subeeni96@naver.com) 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네요 :)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 중 하나인 새해 첫 날 한국인 친구들과 파티룸에서 찍은 사진으로  
긴 후기를 끝마치겠습니다. 이 후기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